



<인터뷰>

박무웅 /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

여기는 폐기물을 소각하여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. 폐기물을 소각해서 스팀(열)을 생산하거나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



<리포트>

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스팀형태의 에너지로 회수해 가까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데요. 에너지는 분배기로 나뉘어 이웃 기업과 직접 연결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.



<인터뷰>

박광규 / 성광기업 상무이사

전에는 (연료비)한 달에 1억 5천(만원)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42%, 월 6,4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. 우리 회사 내에서도 가스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환경 공해(를 줄이는데)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.



<인터뷰>

오세천 /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

단순히 소각해서 버려지는 폐기물의 소각열을 에너지로 회수함으로써 어차피 사용하게 될 화석연료나 기타에너지원의 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. 무엇보다도 그런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죠.



<인터뷰>

박무웅 /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

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.